

# 의복소재가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비자 조사

박 영 희<sup>†</sup>

경남대학교 패션의류학과

## A Consumer Survey on the Effects of Clothing Materials on Atopic Dermatitis

Young-Hee Park<sup>†</sup>

Dept. of Fashion & Clothing, Kyungnam University

(2008. 1. 24. 접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lothing materials on the atopic dermatitis of atopic patients. A questionnaire was used as the measurement tool of this study. The survey of questionnaire was performed for atopic patients of 987.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of data,  $\chi^2$ -test and percentage of SPSS were used. I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clothing materials which are both effective and ineffective against atopic dermatiti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ost effective clothing materials for atopic dermatitis were the those containing natural aroma and the most ineffective clothing materials for atopic dermatitis were the those containing nylon. In the difference analysis results of both the relapse materials and the relapse factors for atopic dermatitis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both the relapse materials and the relapse factors for atopic dermatiti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age, educational background, monthly income, and occupation. Consequen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develop the clothing materials suitable for atopic patients and lay the foundation for managing atopic dermatitis more effectively through the rational choice of clothing of atopic patients.

**Key words:** Atopic dermatitis, Clothes materials, Demographic variables; 아토피 피부염, 의복소재, 인구 통계적 변인

### I. 서 론

사회가 다양해질수록 보다 전문적이고 기능적인 의복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의복디자인과 쾌감에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 소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의복소재분야는 단순한 의복기능을 뛰어 넘어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킬 수 있는 신소재들이 대거

개발 및 출시되고 있다.

현대의 대기오염이나 주거환경의 변화 등은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였으며, 이러한 질환 중 고질적인 피부질환으로 최근 그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질환 중의 하나가 아토피 피부염이다. 의복은 피부와 가장 근접한 환경으로 이러한 피부염 환자들에게 있어 의복소재의 특성은 의복의 다른 어떤 요소보다 중요할 것이다.

아토피 피부염은 아토피 인자를 가지고 있는 개인에서 피부, 호흡기, 점막, 안점막, 장점막 등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알레르기 증상을 말하며(송병희, 2005), 피부의 가장 바깥에 있는 피부보호벽인 각질층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김정현, 2005)으로 건조한 계절에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phykk@kyungnam.ac.kr

본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331-C00339).

는 이러한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아토피·여드름”, 2005; “아토피 제품”, 2004)와 주간동아(“사람 잡는 서울공기”, 2006)에 의하면 2000년부터 2년 동안 환자 증가율이 6.7%인 가운데 10대가 30%, 20대가 2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3년에 비해 2004년에는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가 7.2% 증가하였으며,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아토피 환자 층이 확대되는 등 아토피 피부염은 지난 30년간 3배 가량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성인 아토피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이는 사회생활에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환경오염의 심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성인 아토피는 자연 치유의 확률이 높은 소아 아토피에 비해 자연치유가 잘 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아토피”, 2006), 심할 경우에는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만큼 그 고충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급속한 환경의 변화로 청소년과 성인들에게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유전학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지만 질병의 발현과 경과에는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므로 그 발병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치료에 있어서도 쉽지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혜정 외, 2004).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 크게는 산업화에 따른 주거, 생활 습관, 사회적 환경변화에서부터 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모직으로 된 옷 또는 거친 의복소재, 소파, 발한, 건조피부, 항원증 집먼지 진드기, 대기오염 등(김진우, 1994; 박영민 외, 1997; 박창욱 외, 2005; 이동원 외, 1997; 최혜정 외, 2004; 홍천수, 1995)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 중 모직으로 된 옷 또는 거친 의복소재는 피부에 자극이나 건조 및 발한 또는 증상완화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있어 의복 선택 시 소재는 중요한 선택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에는 생활습관이나 사회 환경적 특징 그리고 경제력과 교육의 발달, 핵가족화 등과 같은 요인들이 관여(Dahl, 1977; Gehring et al., 2001; Leung et al., 2003; Strachan, 1989)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아토피 피부염에는 다인들이 영향을 미치며 또한 그 발병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를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한 부분

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토피 발병률의 급증과 그에 따른 치료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한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피부와 가장 밀접한 의복소재 중 내의류와 일상복 소재에 초점을 맞추어 의복소재가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현재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의복소재와 관련한 만족도와 악화요인 등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의복소재 개발 시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적 및 악화 소재에 대해 파악하고,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악화 소재의 차이와 아토피 피부염 악화요인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아토피 피부염에 의복소재가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로 설문지의 구성은 인구통계적 요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의복소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정도, 아토피 피부염 증상 정도,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적이었던 소재와 악화 소재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 요인에 관한 문항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아토피 피부염 증상 정도에 대한 문항은 선행 연구(이주연, 2004)의 연구결과 선택, 수정하여 선다형으로 작성하였다.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적이었던 소재문항과 악화 소재문항은 내의류와 일상복에 활용되는 의복소재를 중심으로 예비조사를 거친 후 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12종류의 소재를 선별하여 선다형으로 구성하였다. 아토피 피부염 악화요인에 관한 문항은 1차적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가장 많이 응답한 요인들을 추출하고 2차로 최혜정 외(2004)의 연구와 Morren et al.(1994)의 연구, 그리고 박영민 외(1997)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아토피 피부염 악화에 주요하게 작용한 요인을 선택한 후 본 연구의 목적, 즉 의복소재가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라는 점을 고려하여 아토피 악화요인을 수정 선택하였다. 그 결과 아토피 피부염 악화요인으로 피부건조, 거친 소재의 의복, 땀, 몸에 붙는 의복이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외 기온 변화,

<표 1> 인구통계적 특성

인구통계적 특성		남 성 (n=458)	여 성 (n=529)	인구통계적 특성		남 성 (n=458)	여 성 (n=529)
연령	20대	196	229	월소득	200만원 미만	118	57
	30대	100	145		200백 이상~300백 미만	163	119
	40대	79	101		300백 이상~400백 미만	128	238
	50대	83	54		400백 이상	49	115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67	59	직업	사무직	27	22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3	154		전문직	57	53
	대학교 재학 및 휴학	109	95		판매/서비스및생산직	29	56
	대학교 졸업 이상	169	221		공무원/교육자	28	21
					자영업	77	17
			학 생	163	178		
			무직 및 기타	77	19		
			주 부	-	163		

꽃가루 그리고 음식물 등이 기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아토피 피부염 악화요인 문항은 5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하여 선다형으로 작성하였다. 그 외 성별, 연령, 최종학력, 월소득, 직업의 인구통계적 문항으로 구성되어졌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6년 10월에서 2007년 2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조사지역은 대구 부산을 비롯한 경남지역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회수된 1,500부 중 연구분석결과의 신뢰도에 문제를 가져 올 수 있는 자료를 제외한 987부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자료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및  $\chi^2$ -test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적 소재와 악화 소재

1)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적 의복소재의 분석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적이었던 의복소재가 있었던가의 질문에 있었다고 응답한 피험자 수는 987명 중 463명이었으며, 524명은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없다고 표기하였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소재가 있었다고 응답한 피험자만을 대상으로 아토피 피부염 효과소재를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아토피 피부염

<표 2>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적이었던 의복소재

효과소재	빈도 및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천연 아로마 함유소재	75	16.2
솻 함유소재	66	14.3
흡습속건소재	60	13.0
항균가공소재	50	10.8
항토포염색소재	44	9.5
옥 함유소재	35	7.6
전자파 차단소재	28	6.0
초경량소재	25	5.4
은 함유소재	25	5.4
비타민 함유소재	24	5.2
수정 함유소재	12	2.6
자석소재	2	0.4
기 타	17	3.7
합 계	463	100.0

에 효과를 경험한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백분율을 보인 효과적 소재는 천연 아로마 함유소재로써 16.2%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솻 함유소재가 14.3%, 흡습속건소재가 13.0%, 항균가공소재가 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소재들의 효과에 대한 백분율은 10% 이하로 저조한 비율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한 의복소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던 것은 천연 아로마 함유소재로 나타났다. 또한 효과적 이었다고 응답한 소재의 종류는 다양하였으나 효과소재의 비율이 17% 이상을 차지하는 소재가 없는 등 아토피에 효과적 소재에 대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적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의료전문 분야와 연계한 보다 과학적인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 아토피 피부염 악화 의복소재**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다고 응답한 의복소재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켰던 소재의 유무경험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 3>과 같이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 소재가 있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882명으로 89.6%, 없었다가 105명 10.4%로 착용 의복소재 중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 소재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켰다고 응답한 소재로 높은 비율을 보인 소재는 나일론을 비롯하여 양모, 마, 폴리에스테르 등으로 나타났다.

**<표 3> 아토피 피부염 악화 의복소재의 유무 빈도 분석**

악화 소재 유무	빈도(명)	백분율(%)
없었다	105	10.4
있었다	882	89.6
합 계	987	100

**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악화 소재의 차이**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켰다고 응답한 의복소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악화 소재의 차이를  $\chi^2$ -test로 분석한 결과 <표 4-8>과 같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악화 의복소재의 차이 분석결과 <표 4>와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의 경우 아토피 피부염 악화시켰다고 응답한 소재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나일론으로 38.6%, 다음으로는 양모가 12.0%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소재는 나일론이 31.9%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악화 소재가 없었다 12.1%, 양모와 마가 동일하게 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켰다고 응답한 소재로 남녀 모두 나일론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나일론과 양모를 아토피 피부염을 더 악화시키는 소재로 응답하

**<표 4> 성별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에 비효과적 소재의 차이 (단위: 명(%))**

의복소재	성 별	남 성	여 성
		458(100)	529(100)
면		7( 1.5)	3( 0.6)
견		6( 1.3)	5( 0.9)
양 모		55(12.0)	60(11.3)
마		42( 9.2)	60(11.3)
나일론		177(38.6)	169(31.9)
폴리에스테르		20( 4.4)	52( 9.8)
아크릴		27( 5.9)	32( 6.0)
레이온		19( 4.1)	11( 2.1)
혼방섬유		40( 8.7)	42( 7.9)
기능성소재		11( 2.4)	10( 1.9)
기 타		11( 2.4)	21( 4.0)
없 다		43( 9.4)	64(12.1)
$\chi^2$ 값		24.411*	

\* $p < .05$

였다.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켰던 소재가 없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또한 마의 경우에는 여성이 더욱 악화 소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남성 아토피 피부염 악화 소재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연령, 최종학력, 월소득,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켰다고 응답한 소재의 차이 결과 <표 5>와 같이 모든 연령층에서 나일론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대는 양모와 마, 30대는 혼방섬유, 양모, 40대는 아토피 악화 소재가 없었다, 50대는 폴리에스테르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따른 차이 결과 <표 6>과 같이 모든 학력집단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다고 응답한 소재로 나일론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은 양모, 고등학교 졸업 집단은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켰던 소재가 없었다, 대학 재학 및 휴학 집단은 양모,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은 혼방섬유가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소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월소득에 따른 차이 결과 <표 7>, 모든 월소득 집단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다고 응답한 소재로 나일론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0만원 이하 집단은 양모,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집단은 양모와 악화 소재가 없었다, 300만원 이

<표 5> 연령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악화 소재의 차이

(단위: 명(%))

연령 의복소재	남 성				여 성			
	20대	30대	40대	50대	20대	30대	40대	50대
	216(100)	130(100)	119(100)	133(100)	249(100)	175(100)	141(100)	104(100)
면	5( 2.6)	1( 1.0)	1( 1.3)	0( 0.0)	2( 0.9)	0( 0.0)	1( 1.0)	0( 0.0)
견	4( 2.0)	0( 0.0)	2( 2.5)	0( 0.0)	4( 1.7)	0( 0.0)	1( 1.0)	0( 0.0)
양 모	35(17.9)	12(12.0)	8(10.1)	0( 0.0)	32(14.0)	18(12.4)	10( 9.9)	0( 0.0)
마	30(15.3)	3( 3.0)	4( 5.1)	5( 6.0)	25(10.9)	19(13.1)	13(12.9)	3( 5.6)
나일론	56(28.6)	32(32.0)	35(44.3)	54(65.1)	63(27.5)	46(31.7)	23(22.8)	37(68.5)
폴리에스테르	4( 2.0)	3( 3.0)	3( 3.8)	10(12.0)	31(13.5)	9( 6.2)	8( 7.9)	4( 7.4)
아크릴	11( 5.6)	11(11.0)	5( 6.3)	0( 0.0)	13( 5.7)	5( 3.4)	13(12.9)	1( 1.9)
레이온	14( 7.1)	2( 2.0)	3( 3.8)	0( 0.0)	3( 1.3)	5( 3.4)	2( 2.0)	1( 1.9)
혼방섬유	11( 5.6)	22(22.0)	5( 6.3)	2( 2.4)	22( 9.6)	11( 7.6)	6( 5.9)	3( 5.6)
기능성소재	1( 0.5)	2( 2.0)	0( 0.0)	8( 9.6)	3( 1.3)	0( 0.0)	4( 4.0)	3( 5.6)
기 타	9( 4.6)	2( 2.0)	0( 0.0)	0( 0.0)	12( 5.2)	6( 4.1)	3( 3.0)	0( 0.0)
없 다	16( 8.2)	10(10.0)	13(16.5)	4( 4.8)	19( 8.3)	26(17.9)	17(16.8)	2( 3.7)
$\chi^2$ 값	155.413***				87.029***			

\*\*\*p<.001

<표 6> 학력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악화 소재의 차이

(단위: 명(%))

최종학력 의복소재	남 성				여 성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 재학 및 휴학	대학교 졸업 이상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 재학 및 휴학	대학교 졸업 이상
	67(100)	113(100)	109(100)	169(100)	59(100)	154(100)	95(100)	221(100)
면	1( 1.5)	1( 0.9)	4( 3.7)	1( 0.6)	0( 0.0)	2( 1.3)	1( 1.1)	0( 0.0)
견	2( 3.0)	2( 1.8)	2( 1.8)	0( 0.0)	2( 3.4)	0( 0.0)	2( 2.1)	1( 0.5)
양 모	7(10.4)	10( 8.8)	19(17.4)	19(11.2)	7(11.9)	17(11.0)	11(11.6)	25(11.3)
마	3( 4.5)	11( 9.7)	11(10.1)	17(10.1)	3( 5.1)	15( 9.7)	8( 8.4)	35(15.8)
나일론	39(58.2)	49(43.4)	38(34.9)	51(30.2)	31(52.5)	52(33.8)	25(26.3)	61(27.6)
폴리에스테르	6( 9.0)	6( 5.3)	3( 2.8)	5( 3.0)	2( 3.4)	14( 9.1)	18(18.9)	18( 8.1)
아크릴	4( 6.0)	1( 0.9)	7( 6.4)	15( 8.9)	0( 0.0)	14( 9.1)	11(11.6)	7( 3.2)
레이온	2( 3.0)	4( 3.5)	7( 6.4)	6( 3.6)	2( 3.4)	2( 1.3)	0( 0.0)	7( 3.2)
혼방섬유	3( 4.5)	8( 7.1)	5( 4.6)	24(14.2)	5( 8.5)	11( 7.1)	11(11.6)	15( 6.8)
기능성소재	0( 0.0)	3( 2.7)	0( 0.0)	8( 4.7)	2( 3.4)	3( 1.9)	0( 0.0)	5( 2.3)
기 타	0( 0.0)	2( 1.8)	8( 7.3)	1( 0.6)	0( 0.0)	4( 2.6)	4( 4.2)	13( 5.9)
없 다	0( 0.0)	16(14.2)	5( 4.6)	22(13.0)	5( 8.5)	20(13.0)	4( 4.2)	34(15.4)
$\chi^2$ 값	86.268***				74.344***			

\*\*\*p<.001

<표 7> 월소득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악화 소재의 차이

(단위: 명(%))

의복소재	남 성				여 성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118(100)	163(100)	128(100)	49(100)	257(100)	120(100)	238(100)	115(100)
면	1( 0.8)	2( 1.2)	3( 2.3)	1( 2.0)	1( 1.8)	0( 0.0)	1( 0.0)	1( 0.9)
견	2( 1.7)	2( 1.2)	1( 0.8)	1( 2.0)	1( 1.8)	1( 0.8)	3( 1.3)	0( 0.0)
양 모	25(21.2)	21(12.9)	8( 6.3)	2( 4.1)	9(15.8)	9( 7.6)	27(11.3)	15(13.0)
마	4( 3.4)	9( 5.5)	20(15.6)	9(18.4)	2( 3.5)	12(10.1)	33(13.9)	13(11.3)
나일론	59(50.0)	70(42.9)	36(28.1)	12(24.5)	14(24.6)	39(31.9)	65(27.3)	52(45.2)
폴리에스테르	2( 1.7)	6( 3.7)	11( 8.6)	1( 2.0)	10(17.5)	15(12.6)	18( 7.6)	10( 8.7)
아크릴	6( 5.1)	12( 7.4)	8( 6.3)	1( 2.0)	9(15.8)	7( 5.9)	12( 5.0)	4( 3.5)
레이온	8( 6.8)	1( 0.6)	5( 3.9)	5(10.2)	2( 3.5)	3( 2.5)	4( 1.7)	2( 1.7)
혼방섬유	4( 3.4)	14( 8.6)	13(10.2)	9(18.4)	3( 5.3)	12(10.1)	19( 8.0)	8( 7.0)
기능성소재	0( 0.0)	2( 1.2)	9( 7.0)	0( 0.0)	0( 0.0)	6( 5.0)	3( 1.3)	1( 0.9)
기 타	1( 0.8)	4( 2.5)	3( 2.3)	3( 6.1)	1( 1.8)	2( 1.7)	12( 5.0)	6( 5.2)
없 다	6( 1.3)	20(12.3)	11( 8.6)	5(10.2)	5( 8.8)	14(11.8)	41(17.2)	3( 2.6)
$\chi^2$ 값	99.505***				64.721**			

\*\* $p < .01$ , \*\*\* $p < .001$

<표 8> 직업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악화 소재의 차이-남성

(단위: 명(%))

의복소재	남 성						
	사무직	전문직	판매/서비스 및 생산직	공무원/ 교육자	자영업	학 생	무직 및 기타
	27(100)	57(100)	29(100)	28(100)	77(100)	163(100)	77(100)
면	0( 0.0)	1( 1.8)	1( 3.4)	0( 0.0)	0( 0.0)	5( 3.1)	0( 0.0)
견	0( 0.0)	1( 1.8)	0( 0.0)	0( 0.0)	2( 2.6)	3( 1.8)	0( 0.0)
양 모	2( 7.4)	6(10.5)	6(20.7)	8(28.6)	8(10.4)	25(15.3)	6( 7.8)
마	2( 7.4)	3( 5.3)	0( 0.0)	5(17.9)	4( 5.2)	27(16.6)	1( 1.3)
나일론	5(18.5)	26(45.6)	9(31.0)	3(10.7)	43(55.8)	47(28.8)	44(57.1)
폴리에스테르	5(18.5)	3( 5.3)	0( 0.0)	2( 7.1)	5( 6.5)	4( 2.5)	6( 7.8)
아크릴	7(25.9)	2( 3.5)	5(17.2)	1( 3.6)	1( 1.3)	10( 6.1)	3( 3.9)
레이온	2( 7.4)	0( 0.0)	0( 0.0)	2( 7.1)	1( 1.3)	11( 6.7)	3( 3.9)
혼방섬유	0( 0.0)	5( 8.8)	4(13.8)	2( 7.1)	6( 7.8)	10( 6.1)	6( 7.8)
기능성소재	0( 0.0)	0( 0.0)	0( 0.0)	2( 7.1)	0( 0.0)	1( 0.6)	2( 2.6)
기 타	1( 3.7)	0( 0.0)	1( 3.4)	0( 0.0)	0( 0.0)	9( 5.5)	0( 0.0)
없 다	3(11.1)	10(17.5)	3(10.3)	3(10.7)	7( 9.1)	11( 6.7)	6( 7.8)
$\chi^2$ 값	214.801***						

\*\*\* $p < .001$

상 400만원 미만 집단은 따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차이 결과 <표 8>과 같이 아토피 피부염 악화시킨다고 응답한 소재로 사무직은 아크릴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나일론 및 폴리에스테르로 나타났으며, 전문직은 나일론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아토피 악화 소재가 없

었다로 나타났다. 판매/서비스 및 생산직에서는 나일론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양모, 아크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교육자는 양모소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마, 나일론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집단, 학생, 그리고 무직 및 기타는 나일론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자영업 집단은 양모, 학생 집단은 마와 양모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직 및 기타 집단은 나일론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외의 소재는 10%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여성이 응답한 아토피 피부염 악화 소재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연령, 최종 학력, 월소득,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다고 응답한 소재의 차이 결과 <표 5>와 같이 모든 연령층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다고 응답한 소재로는 나일론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대는 양모, 마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0대는 악화소재가 없었다, 마 그리고 양모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40대는 악화 소재가 없었다, 마, 아크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50대는 나일론 외의 소재는 10% 미만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학력에 따른 차이 결과 <표 6>과 같이 모든 학력 집단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 시

킨다고 응답한 소재로 나일론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에서는 양모,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서는 아토피 악화 소재가 없었다와 양모의 순으로, 대학 재학 및 휴학 집단은 폴리에스테르, 양모 등, 대학교 졸업 이상의 집단에서는 마, 아토피 악화 소재가 없었다, 그리고 양모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에 따른 차이 결과 <표 7>과 같이 모든 월소득 집단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다고 응답한 소재로 나일론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0만원 미만 집단은 폴리에스테르, 양모 및 아크릴의 순으로,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폴리에스테르, 아토피 피부염 악화 소재가 없었다의 순으로,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악화 소재가 없었다, 마, 양모의 순으로, 4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는 양모, 마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차이 결과 <표 9>와 같이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다고 응답한 소재로 전문직, 판매/서비스 및 생산직, 공무원/교육자, 자영업, 학생, 주부 그리고 무직 및 기타 집단에서는 나일론이, 사무직은 양모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사무직은 마, 전문직은 양모와 마, 판매/서비스 및 생산직은 폴리에스테르와 아토피 피부염 악화 소재가 없었다, 공무원/교육자는 마, 양모, 아크릴, 자

<표 9> 직업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악화 소재의 차이-여성

(단위: 명(%))

소 재	여 성							
	사무직	전문직	판매/서비스 및 생산직	공무원/교육자	자영업	학 생	주 부	무직 및 기타
	32(100)	53(100)	56(100)	21(100)	17(100)	178(100)	163(100)	19(100)
면	0( 0.0)	0( 0.0)	0( 0.0)	0( 0.0)	0( 0.0)	2( 1.1)	1( 0.6)	0( 0.0)
견	0( 0.0)	0( 0.0)	1( 1.8)	0( 0.0)	0( 0.0)	4( 2.2)	0( 0.0)	0( 0.0)
양 모	6(27.3)	9(17.0)	4( 7.1)	3(14.3)	1( 5.9)	23(12.9)	14( 8.6)	1( 5.3)
마	5(22.7)	6(11.3)	6(10.7)	3(14.3)	3(17.6)	18(10.1)	19(11.7)	0( 0.0)
나일론	2( 9.1)	18(34.0)	18(32.1)	9(42.9)	4(23.5)	47(26.4)	61(37.4)	10(52.6)
폴리에스테르	1( 4.5)	8(15.1)	9(16.1)	0( 0.0)	3(17.6)	22(12.4)	7( 4.3)	2(10.5)
아크릴	0( 0.0)	1( 1.9)	3( 5.4)	3(14.3)	1( 5.9)	12( 6.7)	10( 6.1)	2(10.5)
레이온	1( 4.5)	0( 0.0)	0( 0.0)	1( 4.8)	0( 0.0)	2( 1.1)	6( 3.7)	1( 5.3)
혼방섬유	2( 9.1)	3( 5.7)	4( 7.1)	2( 9.5)	2(11.8)	22(12.4)	6( 3.7)	0( 0.0)
기능성소재	1( 4.5)	2( 3.8)	0( 0.0)	0( 0.0)	0( 0.0)	0( 0.0)	7( 4.3)	0( 0.0)
기 타	3(13.6)	1( 1.9)	3( 5.4)	0( 0.0)	0( 0.0)	10( 5.6)	4( 2.5)	0( 0.0)
없 다	1( 4.5)	5( 9.4)	8(14.3)	0( 0.0)	3(17.6)	16( 9.0)	28(17.2)	3(15.8)
$\chi^2$ 값	105.965***							

\*\*\*p<.001

영업은 마, 폴리에스테르, 아토피 악화 소재가 없었다, 학생은 양모와 혼방섬유, 주부는 아토피 악화 소재가 없었다, 마의 순으로, 무직 및 기타 집단에서는 아토피 악화 소재가 없었다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다고 응답한 소재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소재는 나일론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중의 하나인 피부건조증과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건조증에 의한 건조된 피부는 땀을 과도하게 흡수하거나 또는 환관공입구가 각전에 의해 막혀 배출되지 못한 땀이 한신 주위를 자극함으로써 소양증과 땀띠를 유발시키는 것으로(이동원 외, 1997) 이에 나일론의 일반특성인 흡수성과 통기성이 좋지 못한 점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피부건조증과 소양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양모와 마소재가 아토피의 비효과 소재로 다른 소재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소재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이동원 외(1997)의 연구에서와 같이 정상인에 비해 피부건조현상에 의해 장벽대의 기능저하로 인해 피부가 자극에 특히 약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3.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악화 요인의 차이**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의복과 관련한 아토피 피부염 악화 요인의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chi^2$ -test를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는 요인의 차이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성별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악화 요인의 차이** (단위: 명(%))

악화 요인	성 별	
	남	여
	458(100)	529(100)
땀이 많이 났을 때	84(18.3)	54(10.2)
피부 건조할 때	180(39.3)	190(35.9)
거친 소재의 의복착용 시	119(26.0)	190(35.9)
몸에 붙는 의복착용 시	61(13.3)	33( 6.2)
기 타	14( 3.1)	62(11.7)
$\chi^2$ 값	56.949***	

\*\*\*p<.001

성별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의 악화 요인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성은 피부가 건조할 때가 39.3%, 여성은 피부가 건조할 때와, 거친 소재의 의복을 입었을 때가 동일하게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의 주요 악화 요인으로 피부의 건조를 들 수 있으며, 차이 분석결과를 통해 남성은 여성에 비해 피부가 건조할 때와 몸에 붙는 의복을 입었을 때 더욱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거친 소재의 의복을 입었을 때 아토피 피부염이 더욱 악화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악화 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최종학력, 월소득,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악화 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11>과 같이 20대에서 40대는 모두 피부가 건조할 때가 가장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0대가 4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50대는 거친 소재의 의복을 착용했을

**<표 11> 연령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악화 요인의 차이**

(단위: 명(%))

악화 요인	연 령							
	남 성				여 성			
	20대	30대	40대	50대	20대	30대	40대	50대
	196(100)	103(100)	79(100)	88(100)	229(100)	148(100)	101(100)	59(100)
땀이 많이 났을 때	26(13.3)	18(18.0)	12(15.2)	28(33.7)	27(11.8)	10( 6.9)	7( 6.9)	10(18.5)
피부건조할 때	90(45.9)	49(49.0)	33(41.8)	8( 9.6)	75(32.8)	63(43.4)	37(36.6)	15(27.8)
거친 소재 의복착용 시	61(31.1)	15(15.0)	8(10.1)	35(42.2)	88(38.4)	48(33.1)	37(36.6)	17(31.5)
몸에 붙는 의복착용 시	17( 8.7)	16(16.0)	22(27.8)	6( 7.2)	9( 3.9)	9( 6.2)	10( 9.9)	5( 9.3)
기 타	2( 1.0)	2( 2.0)	4( 5.1)	6( 7.2)	30(13.1)	15(10.3)	10( 9.9)	7(13.0)
$\chi^2$ 값	87.181***				17.687***			

\*\*\*p<.001



때가 아토피 피부염이 가장 악화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토피 피부염 악화 요인으로 20대는 거친 소재의 의복을 착용했을 때, 30대와 50대는 땀이 많이 났을 때, 40대는 몸에 붙는 의복을 착용했을 때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악화 요인의 차이 결과 <표 12>와 같이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은 거친 소재의 의복을 착용했을 때, 고등학교 졸업, 대학 재학 및 휴학, 그리고 대학교 졸업 이상의 집단에서는 피부가 건조할 때 가장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에서는 땀이 많이 났을 때, 피부가 건조할 때,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서는 거친 소재의 의복을 착용했을 때, 땀이 많이 났을 때, 몸에 붙는 의복을 착용했을 때, 대학 재학 및 휴학 집단에서는 거친 소재의 의복을 착용했을 때, 땀이 많이 났을 때, 대학교 졸업 이상의 집단에서는 몸에 붙는 의복을 착용했을 때,

땀이 많이 났을 때 그리고 거친 소재의 의복을 착용했을 때의 순으로 아토피가 악화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악화 요인의 차이 결과 <표 13>과 같이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에서 400만원 미만의 집단은 피부가 건조할 때가,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는 거친 소재의 의복을 착용했을 때 가장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의 집단은 땀이 많이 났을 때, 거친 소재의 의복을 착용했을 때,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의 집단은 거친 소재의 의복을 착용했을 때, 몸에 붙는 의복을 착용했을 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의 집단에서는 거친 소재의 의복을 착용했을 때, 땀이 많이 났을 때, 몸에 붙는 의복을 착용했을 때, 4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는 땀이 많이 났을 때, 피부가 건조할 때의 순으로 아토피가 악화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학력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악화 요인의 차이

(단위: 명(%))

최종학력 악화 조건	남 성				여 성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재학 및 휴학	대학교 졸업 이상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재학 및 휴학	대학교 졸업 이상
	67(100)	113(100)	109(100)	169(100)	59(100)	154(100)	95(100)	221(100)
땀이 많이 났을 때	21(31.3)	18(15.9)	16(14.7)	29(17.2)	4( 6.8)	15( 9.7)	15(15.8)	20( 9.0)
피부건조할 때	9(13.4)	51(45.1)	44(40.4)	76(45.0)	15(25.4)	45(29.2)	35(36.8)	95(43.0)
거친 소재 의복착용 시	29(43.3)	25(22.1)	40(36.7)	25(14.8)	24(40.7)	68(44.2)	38(40.0)	60(27.1)
몸에 붙는 의복착용 시	2( 3.0)	17(15.0)	7( 6.4)	35(20.7)	2( 3.4)	11( 7.1)	5( 5.3)	15( 6.8)
기 타	6( 9.0)	2( 1.8)	2( 1.8)	4( 2.4)	14(23.7)	15( 9.7)	2( 2.1)	31(14.0)
$\chi^2$ 값	68.068***				36.677**			

\*\*p<.01 \*\*\*p<.001

<표 13> 월소득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악화 요인의 차이

(단위: 명(%))

월소득 악화 조건	남 성				여 성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118(100)	168(100)	128(100)	49(100)	257(100)	119(100)	238(100)	115(100)
땀이 많이 났을 때	27(22.9)	21(12.9)	24(18.8)	12(24.5)	1( 1.8)	18(15.1)	22( 9.2)	13(11.3)
피부건조할 때	53(44.9)	71(43.6)	45(35.2)	11(22.4)	16(28.1)	43(36.1)	99(41.6)	32(27.8)
거친 소재 의복착용 시	21(17.8)	40(24.5)	39(30.5)	19(38.8)	27(47.4)	39(32.8)	73(30.7)	51(44.3)
몸에 붙는 의복착용 시	14(11.9)	23(14.1)	20(15.6)	4( 8.2)	9(15.8)	9( 7.6)	10( 4.2)	5( 4.3)
기 타	3( 2.5)	8( 4.9)	0( 0.0)	3( 6.1)	4( 7.0)	10( 8.4)	34(14.3)	14(12.2)
$\chi^2$ 값	24.147**				33.343**			

\*\*p<.01

직업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악화 요인의 차이 결과 <표 14>와 같이 전문직, 판매/서비스 및 생산직, 자영업, 학생 그리고 무직 및 기타 집단은 피부가 건조할 때, 사무직은 피부가 건조할 때와 몸에 붙는 의복을 착용했을 때, 그리고 공무원/교육자는 거친 소재의 의복을 착용했을 때 아토피 피부염이 가장 악화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무직은 거친 소재의 의복을 착용했을 때, 땀이 많이 났을 때, 전문직은 몸에 붙는 의복을 착용했을 때, 거친 소재의 의복을 착용했을 때, 판매/서비스 및 생산직은 땀이 많이 났을 때, 몸에 붙는 의복을 착용했을 때, 공무원/교육자는 땀이 많이 났을 때, 피부가 건조할 때, 자영업은 몸에 붙는 의복을 착용했을 때, 거친 소재의 의복을 착용했을 때, 학생과 무직 및 기타는 거친 소재의 의복을 착용했을 때, 땀이 많이 났을 때의 순으로 아토피가 악화된다고 응답하였다.

여성들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악화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종학력, 월소득,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악화 요인의 차이 결과 <표 12>와 같이 대학 재학 및 휴학 이하 집단은 거친 소재의 의복을 착용했을 때가,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에서는 피부가 건조할 때 아토피가 가장 악화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에서 대학 재학 및 휴학 집단까지는 피부가 건조할 때,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은 거친 의복 소재를 착용했을 때의 순으로 아토피가 악화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에 따른 차이 결과 <표 13>과 같이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의 집단과 4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는 거친 소재의 의복을 착용했을 때,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의 집단은 피부가 건조할 때 가장 아토피가 악화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의 집단과 400만원

<표 14> 직업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악화 요인의 차이

(단위: 명(%))

악화 조건	남 성						
	사무직	전문직	판매/서비스 및 생산직	공무원/교육자	자영업	학 생	무직 및 기타
	27(100)	57(100)	29(100)	28(100)	77(100)	163(100)	77(100)
땀이 많이 났을 때	4(14.8)	8(14.0)	9(31.0)	10(35.7)	9(11.7)	26(16.0)	18(23.4)
피부건조할 때	7(25.9)	25(43.9)	10(34.5)	4(14.3)	32(41.6)	74(45.4)	28(36.4)
거친 소재 의복 착용 시	5(18.5)	10(17.5)	4(13.8)	14(50.0)	13(16.9)	50(30.7)	23(29.9)
몸에 붙는 의복착용 시	7(25.9)	12(21.1)	6(20.7)	0( 0.0)	17(22.1)	11( 6.7)	8(10.4)
기 타	4(14.8)	2( 3.5)	0( 0.0)	0( 0.0)	6( 7.8)	2( 1.2)	0( 0.0)
$\chi^2$ 값	78.304***						

\*\*\*p<.001

<표 15> 직업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악화 요인의 차이

(단위: 명(%))

악화 요인	여 성							
	사무직	전문직	판매/서비스 및 생산직	공무원/교육자	자영업	학 생	주 부	무직 및 기타
	22(100)	53(100)	56(100)	21(100)	17(100)	178(100)	163(100)	19(100)
땀이 많이 났을 때	4(18.2)	3( 5.7)	7(12.5)	1( 4.8)	0( 0.0)	22(12.4)	17(10.4)	0( 0.0)
피부건조할 때	6(27.3)	16(30.2)	15(26.8)	4(19.0)	7(41.2)	62(34.8)	77(47.2)	3(15.8)
거친 소재 의복착용 시	10(45.5)	13(24.5)	19(33.9)	8(38.1)	8(47.1)	70(39.3)	52(31.9)	10(52.6)
몸에 붙는 의복착용 시	0( 0.0)	10(18.9)	6(10.7)	1( 4.8)	1( 5.9)	5( 2.8)	9( 5.5)	1( 5.3)
기 타	2( 9.1)	11(20.8)	9(16.1)	7(33.3)	1( 5.9)	19(10.7)	8( 4.9)	5(26.3)
$\chi^2$ 값	69.804***							

\*\*\*p<.001

이상의 집단은 피부가 건조할 때, 월소득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의 집단은 거친 소재의 의복을 착용했을 때의 순으로 아토피가 악화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차이 결과 <표 15>와 같이 사무직, 판매/서비스 및 생산직, 공무원/교육자, 자영업, 학생, 무직 및 기타 집단에서는 거친 소재의 의복을 착용했을 때, 전문직과 주부 집단에서는 피부가 건조할 때 아토피가 가장 악화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무직, 판매/서비스 및 생산직, 자영업, 학생 집단은 피부가 건조할 때, 전문직과 주부 집단은 거친 소재의 의복을 착용했을 때, 공무원/교육자와 무직 및 기타 집단은 기타 기온 차 등의 순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의 악화 요인에 유의한 차이 알 수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피부건조와 거친 소재의 의복착용이 아토피 피부염의 주요 악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조사시간이 10월에서 2월 사이로 계절적으로는 가을 겨울에 해당하는 시기로 최성신(2003)의 연구에 의하면 겨울철에 아토피 피부염 질환이 증가한다고 하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가을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보다 피부건조와 거친 의복소재를 접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 이러한 것이 영향을 미쳤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 남녀 모두 아토피 피부염 악화 요인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인구통계적 변인 각각에 대하여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본 연구범위의 한계와 관련 분야 선행연구의 부재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내지 못하였지만,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원인이 임상연구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 있다면 더욱 유의한 연구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해 의복소재가 아토피 피부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은 시대나 인종, 지역, 의식주 생활 양식 등의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최혜정 외, 2004)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토피 피부염과 의복소재와의 관계에 대한 임상연구가 함께 진행된다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위한 의복소재 개발이 진일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IV. 결론 및 제언

아토피 피부염이 의복소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적 의복소재 분석결과 천연 아로마 함유소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둘째, 아토피 피부염에 비효과적이었던 의복소재 분석결과 아토피 피부염에 비효과적이었던 소재가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비효과적 소재로 가장 높은 백분율을 보인 것은 나일론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에 비효과적이었던 소재의 차이 분석한 결과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전반적으로 나일론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나일론과 양모를, 여성은 마를 더욱 비효과적 소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의 비효과적 소재 차이 결과 남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토피의 비효과적 소재로 나일론에 대한 비율이 점차 높아졌으며, 여성의 경우는 5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력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비효과적 소재의 차이 결과 남성의 경우는 학력이 낮을수록 비효과적 소재로 나일론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중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에서 나일론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월소득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비효과적 소재의 차이 결과 남성의 경우는 월소득이 낮아질수록 비효과적 소재로 나일론에 대한 비율이 높아졌으며, 여성은 월소득 400만원 이상의 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직업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의 비효과적 소재의 차이 결과 남성의 경우는 사무직은 아크릴, 공무원/교육자는 양모 그리고 그 외의 직업 집단은 나일론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여성의 경우는 사무직은 양모 그 외의 직업 집단은 나일론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악화 요인의 차이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피부가 건조할 때, 여성은 피부가 건조할 때와 거친 소재의 의복을 착용했을 가장 아토피가 악화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 결과 남성은 20대에서 40대까지는 피부가 건조할 때, 50대는 거친 소재의 의복착용 시, 여성은 20대와 50대는 거친 소재의 의복착용 시, 30대는 피부가 건조할 때, 40대는 피

부건조 시와 거친 소재의 의복착용 시 아토피가 가장 악화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 결과 남성의 경우는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은 거친 소재의 의복착용 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집단은 피부가 건조할 때, 여성은 대학 재학 및 휴학 이하의 집단은 거친 소재의 의복착용 시,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은 피부가 건조할 때 아토피가 가장 악화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에 따른 차이 결과 남성은 400만원 미만의 집단은 피부가 건조할 때, 400만원 이상의 집단은 거친 소재의 의복착용 시, 여성은 200만원 미만과 400만원 이상의 집단은 거친 소재의 의복착용 시,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의 집단은 피부가 건조할 때 아토피가 가장 악화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차이 결과 남성의 경우 사무직은 피부가 건조할 때와 몸에 붙는 의복을 착용했을 때, 공무원/교육자는 땀이 많이 났을 때, 그 외의 직업 집단들은 피부가 건조할 때, 여성의 경우는 전문직과 주부들은 피부가 건조할 때, 그리고 그 외의 직업 집단들은 거친 소재의 의복을 착용했을 때 아토피가 가장 악화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의복소재에 있어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적이었던 것보다는 효과적이지 못했던 경험이 더 많았으며, 특히 나일론과 같은 땀 흡수가 잘 되지 않는 합성소재나 양모나 마와 같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소재가 아토피에 비효과적 소재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 아토피에 비효과적이었던 소재의 종류에 차이가 있었으며, 아토피의 주요 악화 요인으로 피부건조와 거친 의복소재로 도출됨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에는 인구통계적 변인과 의복소재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은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치료 및 증상완화를 위해서는 다각도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의복소재는 피부와 가장 밀접한 환경중의 하나로써 의복소재와 아토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아토피 피부염의 악화 조건과 의복소재의 물리적 기능이나 태와의 관계 그리고 관능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의복소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 의료 분야와 의복소재 분야가 연계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신뢰를 바탕으로 과학

적인 아토피 피부용 소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의 조사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혼동하여 설문에 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의 편차가 불가피함을 제한점으로 제시하며 또한 조사대상자 선정 시 경북 및 대구, 부산 및 경남지역의 아토피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국의 아토피 환자에 대한 연구결과로 확대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 참고문헌

- 김정현. (2005). *미국특허로 살펴본 아토피의 특허 동향*. 서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김진우. (2004). 성인 아토피 피부염. *의약정보지*, 30(3), 19.
- 박영민, 박홍진, 김태운, 김정원 (1997). 피부과 외래환자에서 아토피 피부염의 상대빈도와 임상적 특징 및 검사소견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35(1), 96-106.
- 박창욱, 정진영, 이주희, 이광훈. (2005). 설문지에 의한 땀분비가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 초록집*, 57, 156-157.
- 사람 잡는 서울 공기. (2006, 7. 11). *주간동아*, p. 26-27
- 송병희. (2005). *아토피 피부염 제품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예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아토피 잡으려면 폐기능 높여줘야. (2006, 7. 13). *환경비즈니스* 자료검색일 2007, 12. 10, 자료출처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
- 약국화장품 '아토피·여드름' 품목강제. (2005, 5. 2). *약업신문*. 자료검색일 2007, 12. 10, 자료출처 <http://www.khidi.or.kr/information>
- 약국화장품, 유아·성인 아토피 제품 쟁탈전. (2004, 12. 15). *데일리팝*. 자료검색일 2007, 12. 10, 자료출처 <http://www.khidi.or.kr/information>
- 이동원, 변대규, 김진우. (1997). 설문지를 통한 한국인 아토피 피부염 임상병력의 진단적 중요성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35(3), 443-339.
- 이주연. (2004). *아토피성 피부에 대한 인식과 아로마 이용 실태*. 대구한의대학교 보건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성신. (2003). *아토피 피부염 치료 보조제로서의 사해 소금 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예향장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혜정, 김규한, 김명남, 김진우, 노영석, 박천욱, 양준모, 이광훈, 이애영, 이정덕, 조상현. (2004). 아토피 피부염 연구회 보고서: 설문지에 의한 한국 성인형 아토피 피부염의 유발요인에 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42(9), 1152-1160.

- 홍천수. (1995). 우리나라에서 아토피가 증가하고 있는가? *알레르기*, 15(3), 300-303.
- Dahl, M. V. (1977). Atopic dermatitis: The concept of flare factors. *South Medical Journal*, 70, 435-455.
- Gehring, U., Bolte, G., Borte, M., Bischof, W., Fahlbusch, B., & Wichmann, H. E. (2001). Exposure to endotoxin decreases the risk of atopic eczema in infancy: A cohort study. *Journal Allergy Clin Immunol*, 108, 847-854.
- Leung, D. Y. M., Eichenfield, L. F., & Boguniewicz, M. (2003). *Atopic dermatitis (Atopic eczema): Dermatology in general medicine* (6th ed.). New York: McGraw Hill.
- Morren, M. A., Przybilla, B., Bamelis, M., Heykants, B., Reynaers, A., & Degreef, H. (1994). Atopic dermatitis: Triggering facto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september, 467-473.
- Strachan, D. P. (1989). Hay fever, hygiene, and household size. *British Medical Journal*, 299, 1259-1260.